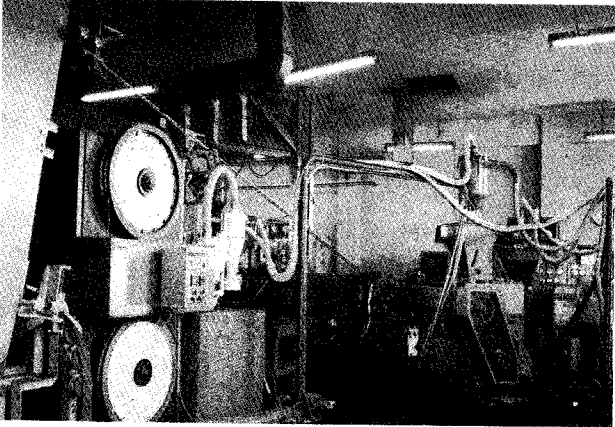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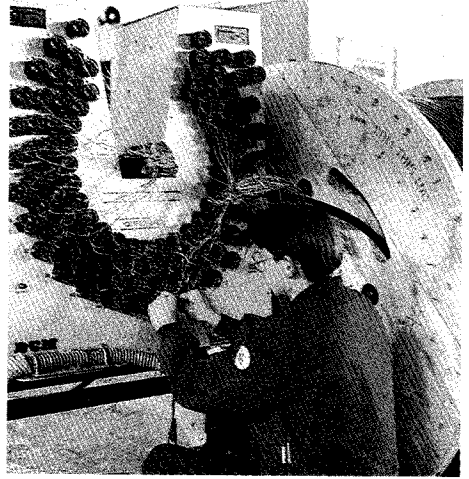


하원사 탐행/대성전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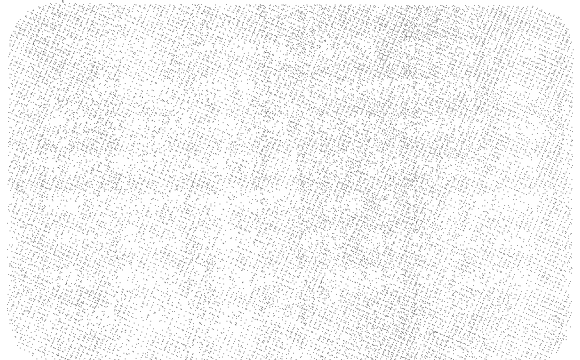
▲ CCV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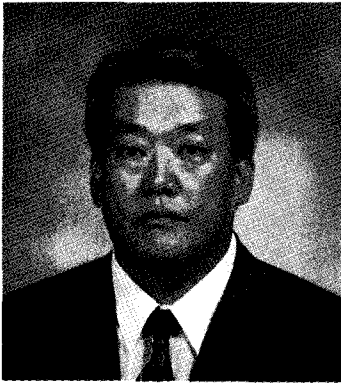
▲ DCM 측정장면



▲ 베트남 합작사 조인식



수출과 해외진출로 세계적 기업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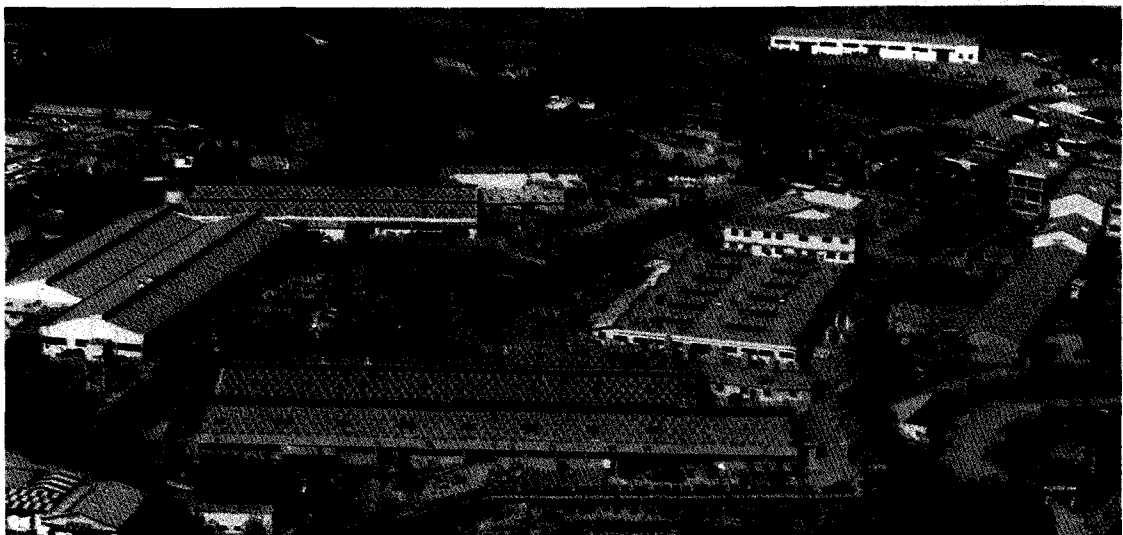
양 시 백 사장

- 1983. 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1971. 2.: 자유전업사 경영
- 1974. 5.: 천일전업사 경영
- 1976. 6.: 대성전선(주) 전무이사 취임
- 1980. 1.: 대성전선(주) 대표이사 취임(현)
- 1995. 6.: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취임(현)

1960년 11월 서울 미아동에서 자본금 2500만원과 60명의 직원을 둔 대성 전업으로 출발하여 PVC 전선을 생산하기 시작한 동사는 '72년 대성전선(주)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75년에 대지 1만 3천평 크기의 현 소재지(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로 이전하였으며 '80년 1월에 현 양시백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해왔다. 양사장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정신을 자양분으로 하여 오늘날 대성은 대기업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아이템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85년에 경기도 연천에 자동차용 선재 전문생산 업체인 광화전선(주)을 설립하였고 '96년 6월에는 충북 음성에 1만2천평 부지를 매입하여 대성물류(주)·대호전선(주)을 대영전선(주)으로 흡수, 합병하였으며 '92년 충북 청원에 3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96년 8월에 자동차전선 전문업체인 대성 케이블(주)을 가동시켜 명실상부한 중견 전선 제조업체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중소기업으로는 최초로 CV케이블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폼·스킨 통신케이블을 개발하는 등 다른 전선업계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해왔다.



▲ 공장 전경

5천만불 수출탑 이룩... 업계 최초로 ISO9002 획득

기업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요인들 중 한국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난제로 묶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수출지향이라는 목표일 것이다. 연평균 수출성장률 30%, 수출 국가 58개국, '96년 5천만불 수출탑 수상 등 대성전선을 통하여 기업의 이념 중 수출을 최상의 목표로 하여 성장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60년 창업이래 전선업체 중 처음으로 1966년 2월 베트남에 처녀전선수출의 길을 열면서 오직 수출과 해외진출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국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89년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7년만에 5천만불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 회사는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및 기타 전선 케이블 분야에 특별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전선제조업체로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노사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생산성 향상이 경쟁력 확보, 수출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명아래 장기적인 경영전략으로 ▲수출 중심의 세계화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설비 자동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영전략의 실현으로 1992년도엔 동종업계 최초로 오스트레일리아 표준협회로부터 ISO9002를 취득하기도 했다.

2000년대 매출 2천억, 수출 1억불 달성 목표

대성전선은 정직과 신뢰, 수출보국이라는 경영이념을 표방하면서 해외 진출에도 뜻을 같이 하여 1993년 7월 베트남 DGPT(베트남 체신부)와 공동 출자 형식으로 통신케이블 제조 업체인 VINADAESUNG사를 설립하였다. 총



▲ 대연기



▲ 제2공장(광화전선) 내부전경

360여만불을 투자했던 본 공장은 창업 3년만에 1천만불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기업의 성공사례로 꼽혀 현지 산업시찰단의 주요 견학지가 되고 있다. 1993년 일본 나고야에 IMPORT CABLE사를 설립해 기술우위를 지키고 있는 일본시장에 새롭게 도약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중국에 통신케이블 제조회사인 남령화성유한공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돌입하면서 중국시장에 대성의 상품을 상륙시켰다.

1996년 현재 대성전선은 종업원 290명으로 매출액 1천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수출은 전체 매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는 매출 2천억원에 수출 1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30억원 이상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1세기 최고 기술혁명인 초전도선 기술개발로 사업 다각화

대성전선은 수출뿐만 아니라 고급 정보화시대를 맞아 초고속 정보시스템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아이템을 전문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21세기 최고의 기술혁명으로 불리워지는 초전도기술 응용 중에서 가장 핵심소재인 금속계 초전도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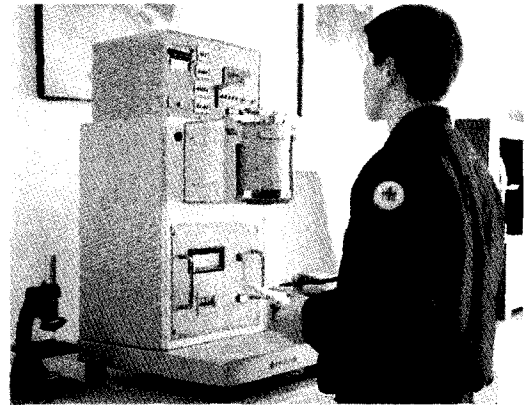
대성전선은 한국전기연구소와 공동으로 1995년 국내 최초로 프로토타입 MRI 마그네트용 NbTi 초전도선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바 있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1998년 하반기 상용화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초전도선의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기술을 바탕으로 초전도선의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나 필라멘트 개수가 더 많고 높은 자장에서도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NMR용 초전도선도 1999년까지는 상용화할 목적으로 개발중에 있다. 한편 국가 선도기



▲ 통신공장 내부전경

술개발과제인 '차세대 핵융합장치 개발' 프로젝트 중 초전도자석 계통 개발과제에서 한국전기연구소, 삼성중합기술원과 공동으로 핵융합 초전도 도체 개발중의 Nb₃Sn 화합물계 초전도선의 가공 및 소선 연선 개발분야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ITER) 계획에도 초전도선의 공급 업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대성전선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1세기의 의료, 에너지, 과학, 교통, 전자통신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초전도기술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사장면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대성전선은 제품투자뿐 아니라 교육투자에도 많은 신경을 써 매년 초에 1년 교육프로그램을 짜 한사람이 한번은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교육은 위탁교육인 각 부서별 직능교육과 전체 사원교육, QM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질있는 인력확보 문제는 특히 기업에게 있어서는 기업의 흥망 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양 사장은 "교육은 반복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행할 때만이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라며 인재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사원대상 경영설명회 개최를 통한 경영방침 결정, 관리직 사원의 업무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보고서 제도 등도 실시하고 있다.

1989년 1월 기업을 공개하여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 후생복지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 1992년도에는 노사화합 증진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 회사연혁 ◎

- 1960. 11. 대성전업으로 법인체 설립
- 1972. 1. 대성전선(주)로 상호변경
- 1975. 4. 현 위치로 공장이전(서울 미아동에서)
- 1980. 2. 특고압 CCV공장 준공 및 설비 도입
- 1983. 11. 500만불 수출탑 수상(제20회 수출의 날)
- 1985. 7. F/S-J/F 통신케이블 K.T개발시험 인증
- 1987. 3. 노사협조 증진으로 국무총리상 표창
- 6. UL(미국안전규격)인증 취득
- 1988. 1. CSA(캐나다 표준협회) 인증 취득
- 1989. 1. 기업공개
- 7. 미쓰비시 전선과 방수전선제조관련 기술 도입
- 11. 1000만불 수출탑 수상(제26회 수출의 날)
- 1991. 10. 일본통신성 전기용품 갑종 MARK 등록
- 1992. 2. 노사협조증진으로 대통령상 표창
- 3. ISO-9002/AS3902/NIS9002 인증 취득
- 1993. 1. 베트남합작투자사 설립(VINADAESUNG CABLE CO.)
- 1995. 2. 중국합작투자사 설립(남녕화성 케이블)
- 1996. 8. 남녕화성케이블 준공
- 1996. 11. 5000만불 수출탑 수상
- 1997. 4. 베트남 DAVIPCO 합작사 설립
- 1997. 7. 탄자니아 TDCL 합작사 설립